

노동정책연구

2003. 제3권 제4호 pp. 1~24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노동력 활용지표에 관한 소고 여성 유희인력 지표를 중심으로

황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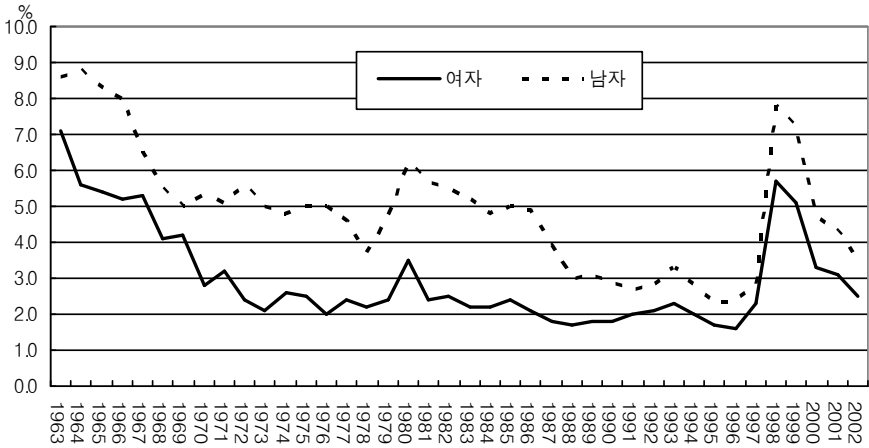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한 사회의 노동공급 및 활용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노동력 지표이다. 그러나 이 글은 이들 지표가 노동시장에의 결속(attachment)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이나 청년층,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공급 구조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의식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력 지표들을 검토하고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고용률-유희화율-이탈률의 개념을 도입하여 여성 유희인력 풀(pool)의 규모와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에 의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나라 여성인력 활용 전망에 있어서의 구조적 맹점을 포착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핵심용어 : 노동력 지표, 실업의 정의, 유희인력, 노동시장 결속도, 잠재실업, 실망실업자, 경계실업자

I. 문제의 제기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한 사회의 노동공급 및 활용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노동력 지표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가용인력의 규모를, 그리고 실업률은 그 중 유희인력의 규모를 포착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통상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공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려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동공급이 독립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노동시장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아 교

[그림 1] 성별 실업률 추이 : 1963~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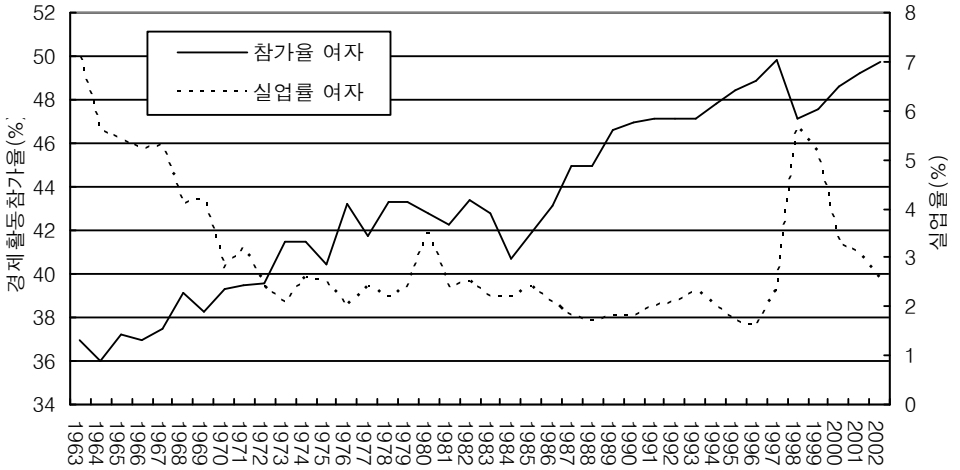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란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의 결속(attachment)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이나 청년층,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여성의 예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 여성의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2002년 여성 실업률은 2.5%로 남성 실업률 3.5%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40여 년간 여성 실업률은 항상 남성 실업률을 밑돌았다(그림 1). 그러나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여성의 취업여건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경기 변동에서 완충(buffer)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시장에서 취업여건이 악화되면 아예 구직을 포기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여성이 늘어나 실업률이 충분히 상승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2]는 여성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존재함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상관계수 -0.52).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하여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화한 노동력 지표이다. 경제활동인구란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노동력의 규모를 의미하는데, 현재 취업하고 있는 취업자와, 취업을 희망하지만 현재 취업하고 있지 못한 실업자까지를 경제활동인구 범주에 포함시킨다. 통상 ‘취업을 희망’하는지의 여부는 ‘구직활동’이라는 객관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취업을 희망’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포착되는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

[그림 2] 여성의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1963~20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고 가용노동력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결국 구직활동 여부가 경기변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면, 유희인력으로 포착되는 실업자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지나치게 과소 평가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의 결속 정도가 낮은 그룹의 노동공급 상황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시장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고 느낄 때,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높지만 실제 공식적으로 잡히는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상에서 비롯된다.

이 글에서는 유희인력을 측정하는 통상의 실업자 정의 방식을 대신해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유희인력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력 공급 구조의 변화에 나타난 특징과 문제점을 기술적(descriptive)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사용되었다. 제II장에서는 실업의 측정과 유희인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한다. 제III장에서는 노동력 지표를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잠재실업자를 포괄하는 여성 유희인력의 규모와 특징을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이 글의 논점을 요약한 후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검토

1. 실업의 측정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식 실업률은 노동력 접근방법에 기반을 두고 측정된다. 통상의 노동력 접근방법에서는 노동력의 상태를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와 노동시장 밖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out-of-the-labor force)로 구분하고 이 중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실업률(unemployment rate)로 정의한다.

통상의 노동력 접근방법에 의한 실업자 추계가 안고 있는 한계에 대한 최초의 문제 제기는 1930년 대공황을 거치면서 경기 변동과 노동공급의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다(정진호, 1986). Woytinsky(1940)는 경기 불황시 가계의 수입이 줄기 때문에 가구내 잠재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이 발생한다는 부가노동자가설(added worker theory)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Humprey(1940)와 Long(1958)은 경기 불황시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2차 노동력을 중심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실망실업자가설(discouraged worker theory)을 제기하였다. 최근 대부분의 실증 연구에서 경기 불황시 실망실업자효과가 부가노동자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공급과 경기 변동은 순경기적(pro-cyclical)이라는 시각이 정설로 되어 있다(McCornnell & Brue, 1992; Gray, Heath & Hunter, 2002). 우리나라에서는 정진호(1986)가 1970년부터 1984년까지 비농부문 노동공급의 경기 감응도를 분석한 결과 실망실업자효과가 부가노동자효과를 압도한다는 동일한 결론을 얻어냈다.

이 과정에서 실망실업자로 파악되는 잠재노동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ILO도 실망실업자를 잠재노동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하위그룹으로 정의하기에 이르렀다(Hussmanns, Mehran & Verma, 1990).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노동통계국(BLS)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에서는 공식 실업률 지표 이외에 실망실업자를 포괄하는 보완실업률 지표를 제시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실망실업자 외에도 노동시장에 미약하게 결속되어 있는 경계노동력(marginally attached to the labor market)의 특성과 변동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이들을 잠재실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실업률 지표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Bregger & Haugen, 1995; Green, 1999; Gray, Heath &

* 공식 실업률 지표:

$$\frac{(\text{완전})\text{실업자}}{\text{노동력} (= \text{취업자} + (\text{완전})\text{실업자})}$$

* 잠재실업을 포함하는 보완실업률 지표:

$$\frac{(\text{완전})\text{실업자} + \text{잠재실업자}}{\text{노동력} (= \text{취업자} + (\text{완전})\text{실업자} + \text{잠재실업자})}$$

Hunter, 2002).

한편 노동력 접근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실업 지표를 정의하는 이론적 논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Greenwood & Kohli(2003)이다. 그들은 노동력 함수(labor aggregator function)를 이용하는 지수(index-number) 접근방법에 의해 실업률을 재구성하고 있는데, 노동력 접근방법에 의한 통상의 실업 측정이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공급은 (상대임금으로 측정되는) 노동시장 여건에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므로 구체적인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2. 경계노동력과 유희인력

실업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와 아울러,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잠재실업자를 가려 내고 이들을 실업자와 동일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통상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근로자 개인이 ‘취업의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양자를 구분하게 되는데, 이 경우 노동시장의 요인에 의해 구직을 포기한 경우(실망실업자)에만 잠재실업으로 간주되기도 하고(Flaim, 1984), 더 나아가 ‘가사·육아나 ‘건강’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구직을 포기한 경우에도 노동시장의 여건이 개선되면 충분히 노동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보아 잠재실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Kodrzycki, 2000).

그러나 Hall(1970)과 Clark & Summers(1979)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잠재실업자와 구직활동을 한 통상의 실업자는 행태상 명백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관적 ‘취업의사’만을 기준으로 실업자를 구분할 경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이

자의적이고 모호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Jones & Riddell(1999)은 노동력 상태를 취업, 실업, 경계노동력, 비노동력의 4개 범주로 나누어 Markov 이행확률 모형에 따라 상태이동을 분석한 결과 경계노동력(marginally attached)은 실업자와 다른 행태상의 특징을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순수비노동력과도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경계노동력과 비노동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계노동력의 행태상의 특징에 관해서는 Sutherland(1999), Jones & Riddell(2000) 등에서도 실증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처럼 경계노동력에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실업의 측정이 실업자 구제를 위한 소극적 정책 지표의 제공에서 일국에서의 노동력 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유휴인력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잠재실업자를 실업자와 동일시하여 실업대책의 대상으로 본다기보다 사회적 통합이나 인력 저활용(underutilization)의 관점에서 유휴인력의 파악이 전 사회적으로 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미국 BLS의 실업률 지표 체계의 변화에서도 포착된다. 1994년 이전까지 BLS는 공식 실업률 지표 이외에 U1-U7의 체계로 실업지표(unemployment measures)를 정의해왔다. 그러나 1994년 「노동력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부터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를 확장하는 경계노동력(marginally attached to the labor market)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반영하여 실업 지표를 U1-U6의 체계로 개편하였다(Bregger & Haugen, 1995).¹⁾

우리나라에서 잠재실업 및 유휴인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조우현·강창희(1996)와 최강식·정진화(1997)에서 잠재실업 및 유휴인력에 관한 논의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우선 조우현·강창희(1996)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잠재실업자와 순수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여기에 자연실업률에 해당하는 실업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휴인력(idle labor force)을 ‘실업자수+잠재실업자수-자연실업률 해당 실업자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잠재실업자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잠재실업의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대우가구패널조사」의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독특한

1) BLS에서 사용하는 경계노동자와 실망실업자의 정의는 엄밀하게는 다음과 같다.

- 경계노동자(Marginally attached workers) : (완전)실업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지난 12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자.
-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그들의 자격조건에 비추어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표 1〉 미국 BLS의 실업 지표의 변화

1994년 이전	1994년 이후
U-1 노동력 인구 중 15주 이상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 비율	U-1 노동력 인구 중 15주 이상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 비율
U-2 노동력 인구 중 실직자(job loser)의 비율	U-2 노동력 인구 중 실직자(job loser) 및 임시고용이 종료된 자의 비율
U-3 25세 이상 노동력 인구 중 25세 이상 실업자의 비율	U-3 전체 노동력 인구 중 전체 실업자 비율 (=공식 실업률 지표)
U-4 전일제 노동력 인구 중 전일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 비율	U-4 전체 노동력 인구 및 실망실업 인구 중 전체 실업자 및 실망실업자의 비율
U-5 전체 노동력 인구 중 전체 실업자 비율 (=공식 실업률 지표)	U-5 전체 노동력 인구 및 경계노동력(marginally attached) 인구 가운데 실업자, 실망실업자 및 모든 다른 경계노동력을 합한 인구의 비율
U-6 전일제 노동력 인구와 파트타임 노동력 인구의 2분의 1을 합한 인구 가운데 전일제 희망 실업자, 파트타임 희망 실업자의 2분의 1, 경제적 이유에 의한 파트타임 취업자의 2분의 1을 합한 인구 비율	U-6 전체 노동력 인구 및 경계노동력 인구 가운데 전체 실업자, 전체 경계노동력 및 경제적 이유에 의한 파트타임 취업자를 합한 인구의 비율
U-7 전체 노동력 인구에 실망실업자를 더하고 파트타임 노동력 인구의 절반을 뺀 인구 가운데 전일제 희망 실업자, 파트타임 희망 실업자의 2분의 1, 경제적 이유에 의한 파트타임 취업자의 2분의 1, 실망실업자를 합한 인구의 비율	

출처 : Bregger & Haugen(1995)의 p.20과 p.23에서 재구성.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 2) 조우현·강창희(1996)는 잠재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자로서 현재 일정한 직장에 정규 직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지난주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만 지난주를 기준으로 미래의 시점인 현재에 구직활동을 하는 자를 잠재실업자로 정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우기구패널조사의 설문이 비표

반면에 최강식·정진화(1997)는 유희인력을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인력으로 정의하여 ‘완전실업자수+잠재실업자수’로 그 규모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잠재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취업희망자로 정의되어 경제노동력에 보다 근접한 개념이다.

조우현·강창희(1996)는 1993년 「대우가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유희인력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자연실업률을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 115만 3천 명, 자연실업률을 감안하면 59만 1천 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한편 최강식·정진화(1997)는 통계청의 1993년 「고용구조조사」를 이용하여 유희인력의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그 규모는 25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이 중 잠재실업자는 전체 유희인력의 80%를 차지하는 180만 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록 동일한 시기에 조사된 연구 결과지만 유희인력의 규모는 매우 상이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두 연구에서 잠재실업자를 파악하는 기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Ⅲ. 여성 유희인력 및 노동력 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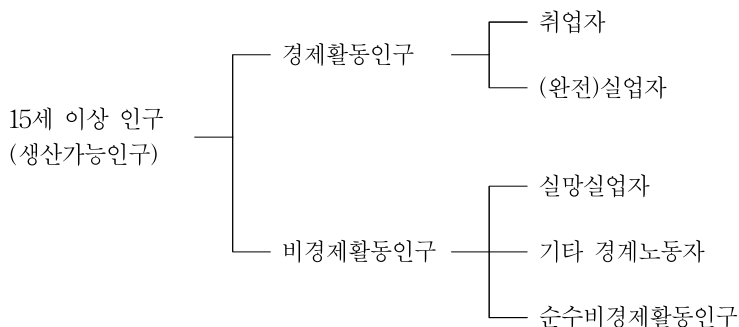
1. 실망실업자, 잠재실업자 및 유희인력의 정의와 규모

통상의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고용 상황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한계가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근본적인 문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직접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자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들을 순수 비경제활동인구와 구분하여 경제노동력(marginally attached workers) 혹은 잠재실업자(hidden unemployed)의 범주로 파악하면 노동공급 구조를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노동력(또는 잠재실업자)은 다시 전통적인 의미의 실망실업자와 기타 경제노동자로 구분될 수 있다. 경제노동력의 범주까지 포함시켜 노동력 상태 구분을 확장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인구를 실망실업자, 기타 경제노동자, 순수비경제활동인구로 세분하는 분류 기준을 살펴보자.

준적으로 설계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실망실업자나 잠재실업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와도 일치하지 않고 개념적으로도 혼동의 여지가 있다.

[그림 3] 노동력 상태의 구분



<표 2>는 200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의사 및 비구직 사유를 살펴본 것이다. 2002년을 기준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남성 124천 명, 여성 149천 명이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의 규모는 남성은 실업자(467천 명)의 30%, 여성은 실업자(241천 명)의 60% 수준에 달한다. 이들은 주관적인 의미에서 ‘취업의사’가 있지만 ‘구직활동’이라는 객관적인 취업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로써 미국 BLS에서는 이들을 경계노동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취업의사’를 좀더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광의의 실업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잠재실업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의사가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의 비구직 사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그룹은 노동시장의 여건이 자신이 취업하는 데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구직을 포기한 경우이다.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③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④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⑥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등의 이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흔히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로 분류된다.

두 번째 그룹은 노동시장 상황보다는 육아, 가사, 통학 등 자신의 여건이 취업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구직을 포기한 자들이다. 이들은 실망실업자는 아니지만 환경적 요인이 개선되면 노동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통상의 비경제활동인구와 구분하여 ‘경계노동력(marginally attached workers)’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하에서는 이들을 경계노동력 내에서 실망실업자와 구분하여 경계실업자로 분류하기로 한다.

<표 2>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의사 및 비구직 사유

(단위: 천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인 원	인 원	인 원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14,360 (100.0)	9,020 (100.0)	19,152 (100.0)
- 취업의사가 없는 자	13,813 (98.1)	4,385 (97.2)	9,427 (98.4)
- 취업의사가 있는 자	273 (1.9)	124 (2.8)	149 (1.6)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29 (10.8)	18 (14.5)	11 (7.7)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60 (21.8)	20 (16.4)	39 (26.3)
③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39 (14.4)	16 (12.5)	24 (16.0)
④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7 (2.4)	3 (2.2)	4 (2.6)
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31 (11.4)	16 (13.0)	15 (10.0)
⑥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48 (17.4)	30 (23.8)	18 (12.1)
⑦ 육아, 가사	25 (9.1)	1 (0.5)	24 (16.3)
⑧ 통학	7 (2.6)	4 (3.4)	3 (2.0)
⑨ 기타	28 (10.1)	17 (13.7)	10 (7.0)

주: ()안은 취업의사가 있는 자 대비 구성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년 원자료.

이들 잠재실업자(=실망실업자 또는 경계실업자)는 순수비경제활동인구와는 달리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가용인력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력의 가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쉽게 이동하거나 취업-실업-비경제활동 상태를 넘나들기 쉬운 2차 노동력 그룹에 대해서는 더욱 유용한 개념이다. 여기서 최강식·정진화(1997)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의미의 실업자에 잠재실업자를 포함하여 유희인력으로 정의한다.

<표 3>은 취업상태, 취업의사 유무 및 비구직 사유를 토대로 2002년 경제활동상태 구성을 세분하여 재작성한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망실업자는 214천 명, 경계실업자는 60천 명 규모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망실업자와 경계실업자 모두 여성의 경우에 수적으로 월등히 많다. 실업자를 포함하여 유희인력으로 파악하면 남성이

592천 명, 여성이 390천 명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유희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유희인력의 구성에서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남성은 유희인력에서 잠재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1.0%에 불과하나 여성의 경우 잠재실업자는 유희인력의 38.2%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1992년 실시된 고용구조조사를 토대로 1993년 잠재실업자를 180만 명 규모로 추산한 최강식·정진화(1997)의 결과와 비교하면 2002년 잠재실업자 27만 명은 지나치게 적은 수치이다. 분석 자료의 상이함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10년간 유희인력의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표 3〉 경제활동인구와 유희인력의 구성

(단위: 천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인 원	인 원	인 원
15세 이상 인구		36,963 (100.0)	17,921 (100.0)	19,042 (100.0)
취업자	전일제취업자	19,597 (53.0)	11,835 (66.0)	7,762 (40.8)
	단시간취업자 1	2,045 (5.5)	818 (4.6)	1,227 (6.4)
	불완전취업자 2	527 (1.4)	292 (1.6)	235 (1.2)
	소 계	22,169	12,945	9,225
실업자(A)		708 (1.9)	467 (2.6)	241 (1.3)
비경활 인구	실망실업자(B) 3	214 (0.6)	103 (0.6)	111 (0.6)
	경계실업자(C) 4	60 (0.2)	22 (0.1)	38 (0.2)
	순수비경활인구	13,813 (37.4)	4,385 (24.5)	9,427 (49.5)
	소 계	14,086	4,510	9,576
	* 잠재실업자(B+C)	273 [27.9]	124 [21.0]	149 [38.2]
* 유희인력(A+B+C)		981 (2.7)	592 (3.3)	390 (2.0)

주: ()안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구성비, []은 유희인력 대비 구성비율임.

- 1) 단시간취업자는 실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자 중 추가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자.
- 2) 불완전취업자는 실근로시간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
- 3) 실망실업자는 취업의사는 있으나 앞의 표에서 ①~⑥항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 4) 경계실업자는 취업의사는 있으나 개인적 제약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년 원자료

〈표 4〉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인구 및 유휴인력의 구성

(단위: 천명, %)

		1992				2002			
		전 체	미혼	기혼 유배우	기혼 무배우	전 체	미혼	기혼 유배우	기혼 무배우
전 체	취업	19,009 (59.4)	4,278 (45.2)	13,582 (68.4)	1,150 (42.5)	22,169 (60.0)	5,017 (48.2)	15,660 (67.9)	1,492 (42.9)
	실업	474 (1.5)	306 (3.2)	154 (0.8)	15 (0.5)	708 (1.9)	392 (3.8)	273 (1.2)	42 (1.2)
	잠재실업	602 (1.9)	135 (1.4)	430 (2.2)	36 (1.3)	273 (0.7)	64 (0.6)	185 (0.8)	24 (0.7)
	순수비경황	11,935 (37.3)	4,745 (50.1)	5,684 (28.6)	1,506 (55.7)	13,813 (37.4)	4,933 (47.4)	6,959 (30.2)	1,921 (55.2)
	소 계	32,020 (100.0)	9,464 (100.0)	19,850 (100.0)	2,706 (100.0)	36,963 (100.0)	10,407 (100.0)	23,077 (100.0)	3,479 (100.0)
남 성	취업	11,370 (73.6)	2,290 (44.5)	8,845 (89.2)	235 (60.8)	12,944 (72.2)	2,795 (48.6)	9,718 (84.6)	431 (63.2)
	실업	315 (2.0)	182 (3.5)	125 (1.3)	8 (2.0)	467 (2.6)	259 (4.5)	189 (1.6)	20 (2.9)
	잠재실업	148 (1.0)	66 (1.3)	78 (0.8)	4 (1.0)	124 (0.7)	41 (0.7)	74 (0.6)	9 (1.4)
	순수비경황	3,618 (23.4)	2,608 (50.7)	871 (8.8)	140 (36.2)	4,385 (24.5)	2,656 (46.2)	1,508 (13.1)	222 (32.5)
	소 계	15,451 (100.0)	5,146 (100.0)	9,919 (100.0)	386 (100.0)	17,921 (100.0)	5,750 (100.0)	11,489 (100.0)	682 (100.0)
여 성	취업	7,640 (46.1)	1,988 (46.0)	4,737 (47.7)	915 (39.4)	9,225 (48.4)	2,223 (47.7)	5,941 (51.3)	1,061 (37.9)
	실업	159 (1.0)	124 (2.9)	28 (0.3)	7 (0.3)	241 (1.3)	134 (2.9)	85 (0.7)	23 (0.8)
	잠재실업	454 (2.7)	69 (1.6)	353 (3.6)	32 (1.4)	149 (0.8)	23 (0.5)	111 (1.0)	15 (0.5)
	순수비경황	8,317 (50.2)	2,137 (49.5)	4,814 (48.5)	1,366 (58.9)	9,427 (49.5)	2,277 (48.9)	5,451 (47.0)	1,699 (60.7)
	소 계	16,570 (100.0)	4,318 (100.0)	9,932 (100.0)	2,320 (100.0)	19,042 (100.0)	4,657 (100.0)	11,588 (100.0)	2,79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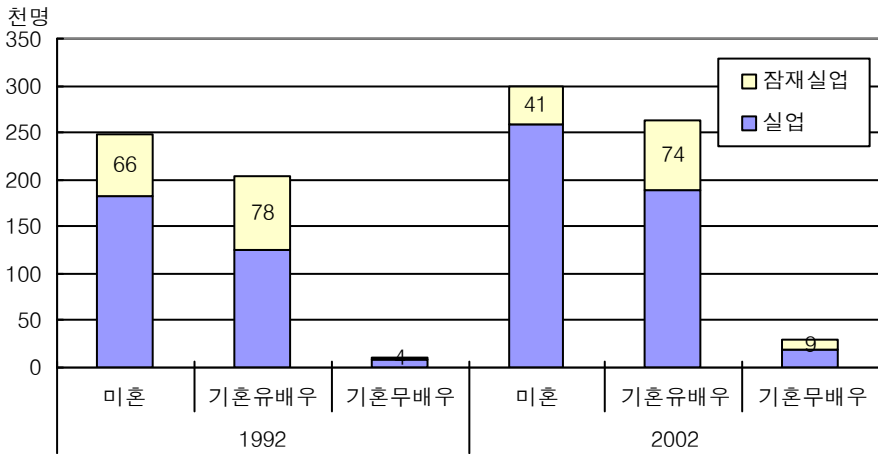
주: ()은 구성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2년과 2002년 원자료.

2. 여성 유휴인력의 구조 변화

지난 10년간의 유휴인력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992년과 2002년에 대해서 앞 절에서 정의된 방식으로 경제활동인구와 유휴인력 구성을 재정리해 보았다(표 4).³⁾ 2002년에 비해 1992년의 경우 실업은 67% 수준에 불과하나 잠재실업은 2.2배에 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1992년 잠재실업은 2002년과 비교하여 3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지난 10년 동안 여성 잠재실업은 454천 명에서 149천 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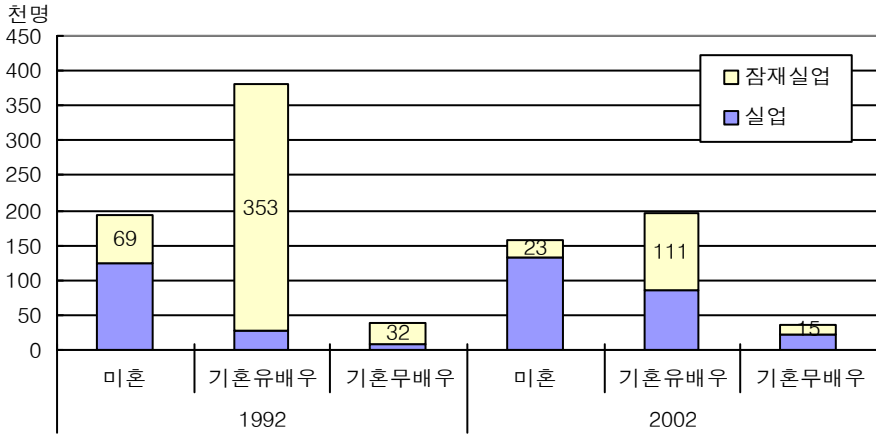
(그림 4) 유휴인력 구성의 변화 : 남성



혼인상태별로 유휴인력 구성의 변화를 보면 의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잠재실업이 줄어든 그룹은 다름 아닌 유배우 기혼여성으로 압축된다. 유배우 기혼여성에서는 실업자는 늘었지만 반대로 잠재실업자가 크게 줄어 결과적으로 유휴인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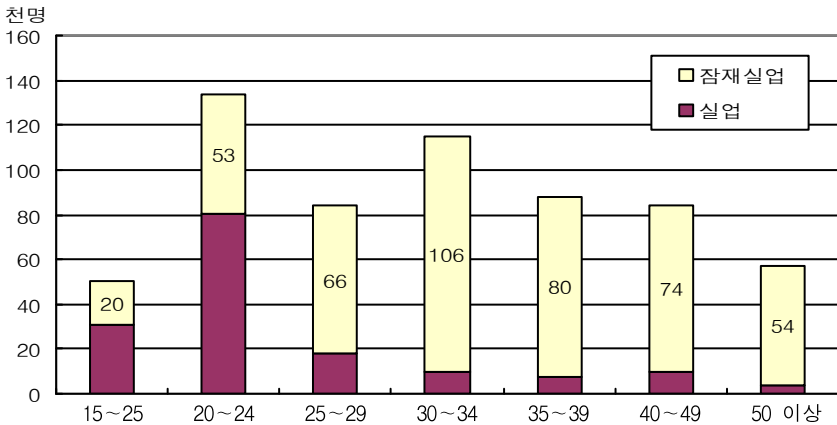
3) 취업의사 여부는 2002년의 경우 ‘취업희망 여부(지난주에 직장(일)을 원하였습니까?)’에 대한 응답에 의거하였고, 1992년의 경우에는 ‘취업의사 유무(지금이라도 알맞은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일하겠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였다. 두 연도의 비교시 설문 구성의 차이로 인한 오차는 배제할 수 없다. 한편 199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취업희망자의 비공직 사유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세부적인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림 5] 유휴인력 구성의 변화 : 여성



<표 5>는 여성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경제활동인구 및 유휴인력의 구성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여성 전 연령대에서 잠재실업이 줄어든 가운데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의 감소 폭이 가장 두드러진다(그림 6과 그림 7).

[그림 6] 연령별 여성 유휴인력 구성 : 1992



또한 증감수로 보면,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비경제활동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하단).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대까지의 젊은 여성은 줄고 30대 이후 연령대 여성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30대 이후 여성

〈표 5〉 여성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및 유휴인력의 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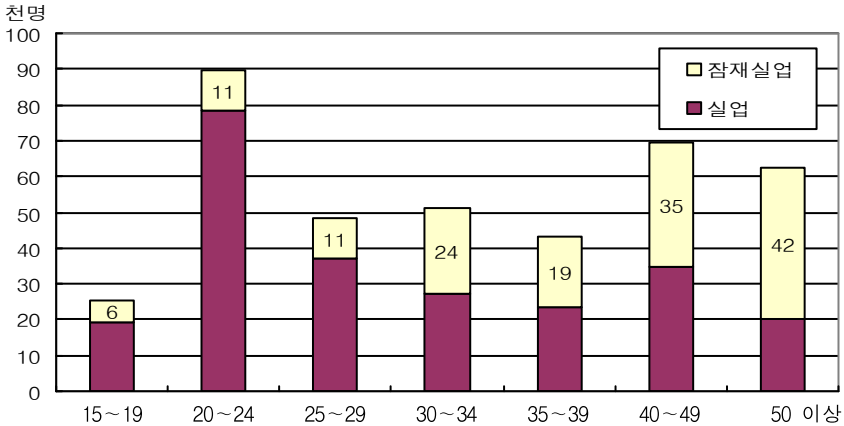
(단위: 천명,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9	50+	전 체
1992	취업	315 (15.8)	1,338 (61.4)	887 (43.2)	993 (47.1)	973 (57.2)	1,413 (60.1)	1,721 (41.2)	7,640 (46.1)
	실업	31 (1.5)	81 (3.7)	18 (0.9)	9 (0.4)	8 (0.5)	10 (0.4)	4 (0.1)	159 (1.0)
	잠재실업	20 (1.0)	53 (2.5)	66 (3.2)	106 (5.0)	80 (4.7)	74 (3.2)	54 (1.3)	454 (2.7)
	순수비경활	1,631 (81.7)	709 (32.5)	1,082 (52.7)	1,002 (47.5)	641 (37.7)	854 (36.3)	2,400 (57.4)	8,317 (50.2)
	전 체	1,996 (100.0)	2,181 (100.0)	2,053 (100.0)	2,109 (100.0)	1,701 (100.0)	2,351 (100.0)	4,179 (100.0)	16,570 (100.0)
2002	취업	172 (10.5)	1,131 (58.3)	1,126 (57.5)	1,045 (48.6)	1,182 (58.2)	2,360 (63.0)	2,210 (39.5)	9,225 (48.4)
	실업	19 (1.2)	78 (4.0)	37 (1.9)	27 (1.3)	24 (1.2)	35 (0.9)	20 (0.4)	241 (1.3)
	잠재실업	6 (0.4)	11 (0.6)	11 (0.6)	24 (1.1)	19 (1.0)	35 (0.9)	42 (0.8)	149 (0.8)
	순수비경활	1,431 (87.9)	718 (37.0)	783 (40.0)	1,055 (49.0)	807 (39.7)	1,317 (35.2)	3,316 (59.3)	9,427 (49.5)
	전 체	1,628 (100.0)	1,939 (100.0)	1,957 (100.0)	2,151 (100.0)	2,032 (100.0)	3,747 (100.0)	5,588 (100.0)	19,042 (100.0)
증 감 수	취업	-143	-207	239	52	209	947	488	1,585
	실업	-12	-2	19	18	16	25	17	81
	잠재실업	-14	-42	-55	-82	-60	-40	-12	-305
	순수비경활	-200	10	-299	53	167	464	916	1,110
	전 체	-369	-242	-96	42	331	1,396	1,410	2,472

주: ()은 구성비.

들의 일부가 취업으로 흡수되었지만 상당수는 더 이상 취업에의 미련을 버리고 비경제 활동인구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취업욕구가 강한 20대의 증가는 소폭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30대 이상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이처럼 지속되고 있다면 여성인력 활용에 분명한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그림 7] 연령별 여성 유휴인력 구성 : 2002



3. 여성 노동력의 활용구조 변화

이쯤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등 노동력 지표들을 고용 상황 및 노동력 활용 정도의 측면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크게 보면, 전체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활용되고 있는 인력과 노동시장에 진입할 의사가 있으나 활용되고 있지 못한 인력,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취업의사가 없는 인력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은 고용률(또는 취업인구비율), 유희화율, 이탈률(또는 휴면율)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는 각각의 지표에 대한 정의와 계산식을 요약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용률(employment-to-population ratio)은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여성, 청년층, 고령자 등의 인력활용 상태를 포착하는 지표로 OECD, ILO 등 전 세계적으로 이미 통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력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 지표를 이용해 연령범주별 여성 유휴인력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보자.

<표 7>은 1992년과 2002년의 고용률, 유희화율, 이탈률을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여성인력의 48.4%만이 노동시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51.6%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2.0%의 유휴인력은 일차적인 가용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인력의 72.2%가 활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여성인력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1992년(3.7%)과 비교하면 여성 유휴인력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여

<표 6> 노동력 활용도를 나타내는 지표

지 표	정 의
고용률	- 생산가능인구 중 현재 노동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구 비율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유희화율	-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시장에 진입할 의사가 있으나 활용되고 있지 못한 인구 비율 * 유희화율 = (완전실업+잠재실업) / 생산가능인구 × 100
이탈률	-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활용되고 있지 못한 인구 비율 * 이탈률 = 순수비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100

주: 고용률, 유희화율, 이탈률의 합은 100임.

성 유희인력의 감소는 기본적으로 여성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고용인구로 흡수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해 있는 여성비율(=이탈률)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어떤 여성들이, 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림 8]과 [그림 9]는 고용률과 유희화율의 연령별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우선 고용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전 연령대에 걸쳐 고용률이 조금씩 하락한 데 반해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상승하고 30대 이상의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근소하게 향상되었다. 한편 유희화율을 보면, 남성은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일정 기간 지연됨에 따라 기본 패턴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20대 후반부터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유희화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대 후반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30대 이상의 기혼여성은 원천적으로 취업을 포기하고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에서는 교육수준별로 여성인력 활용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졸 여성(63.5%)이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국졸 이하(32.4%)가 고용률이 가장 낮다. 국졸 이하 학력 소유자가 고용률이 낮은 것은 이들이 대부분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대졸 여성까지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증가하지만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서는 고용률이 전문대졸에 비해 8%포인트나 적은 55.3%에 머물고 있다(그림 10). 대졸자의 고용률이 전문대졸에 비해 낮은 것은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표 7> 연령범주별 노동력 활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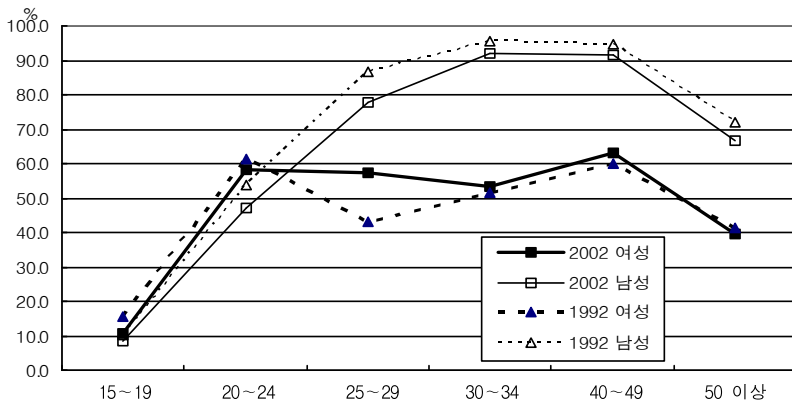
(단위: %)

	2002			1992		
	고용률	유휴회율	이탈률	고용률	유휴회율	이탈률
<여성>	48.4	2.0	49.5	46.1	3.7	50.2
15-19	10.5	1.6	87.9	15.8	2.5	81.7
20-24	58.3	4.6	37.0	61.4	6.1	32.5
25-29	57.5	2.5	40.0	43.2	4.1	52.7
30-39	53.2	2.3	44.5	51.6	5.3	43.1
40-49	63.0	1.9	35.2	60.1	3.6	36.3
50+	39.5	1.1	59.3	41.2	1.4	57.4
<남성>	72.2	3.3	24.5	73.6	3.0	23.4
15-19	8.3	1.4	90.3	10.2	2.1	87.7
20-24	47.0	5.5	47.4	53.9	7.0	39.0
25-29	77.6	6.6	15.8	86.9	5.0	8.2
30-39	92.1	3.3	4.6	95.4	2.1	2.5
40-49	91.5	2.7	5.8	94.6	2.1	3.3
50+	66.6	2.4	31.1	72.0	2.2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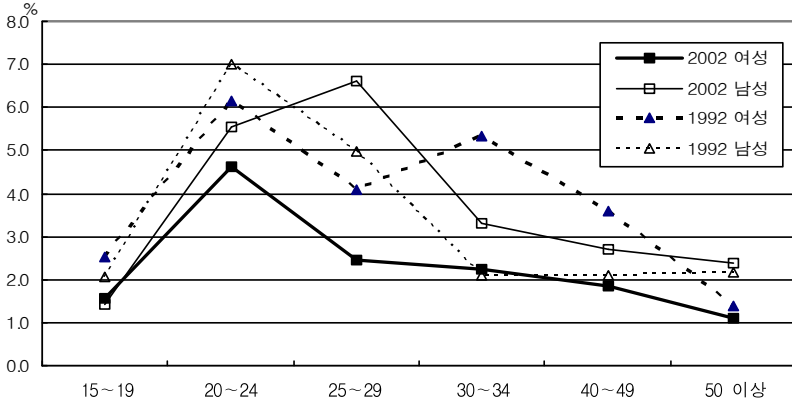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2년과 2002년 원자료.

나 격차 폭에서 여성의 경우가 훨씬 커 남성과 여성 간의 고용률 격차는 대졸 이상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대졸 여성의 고용률은 10년 전보다도 오히려 낮아진 상태이다.

[그림 8] 고용률의 성별·연령별 구조



[그림 9] 유휴화율의 성별·연령별 구조



노동력의 유휴화 정도를 나타내는 유휴화율에서도 남녀 모두 전문대졸까지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유휴화율이 증가하지만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서는 유휴화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그림 11). 10년 전과 비교하여 남성은 고졸자의 유휴화율만 거의 변동이 없고 나머지는 유휴화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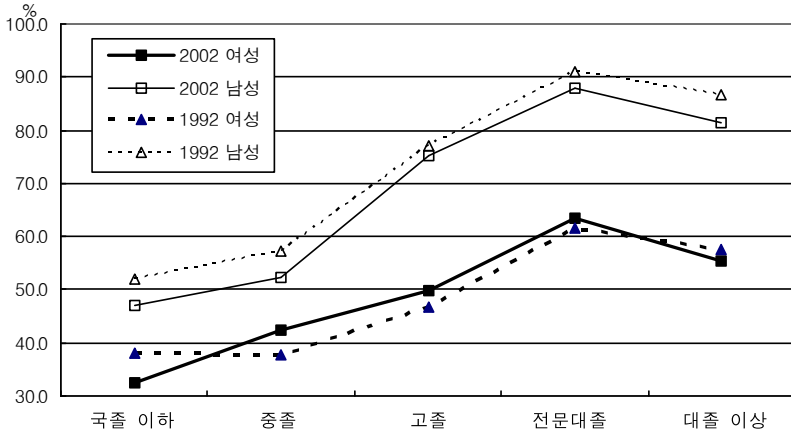
<표 8> 교육수준별 노동력 활용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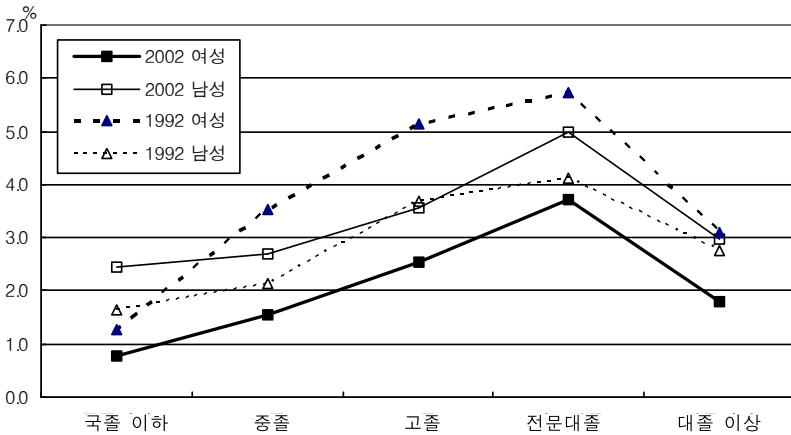
	1992			2002		
	고용률	유휴화율	이탈률	고용률	유휴화율	이탈률
<여성>	46.1	3.7	50.2	48.4	2.0	49.5
국졸이하	37.9	1.3	60.8	32.4	0.8	66.8
중 졸	37.9	3.5	58.6	42.5	1.5	56.0
고 졸	46.8	5.2	48.1	49.8	2.6	47.6
전문대졸	61.5	5.7	32.8	63.5	3.7	32.8
대졸이상	57.6	3.1	39.3	55.3	1.8	42.9
<남성>	73.6	3.0	23.4	72.2	3.3	24.5
국졸이하	52.0	1.6	46.4	47.0	2.5	50.6
중 졸	57.1	2.1	40.7	52.3	2.7	45.0
고 졸	77.2	3.7	19.1	75.2	3.6	21.2
전문대졸	91.1	4.1	4.7	88.0	5.0	7.0
대졸이상	86.6	2.8	10.6	81.3	3.0	15.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2년과 2002년 원자료.

[그림 10] 고용률의 성별·교육수준별 구조



[그림 11] 유휴화율의 성별·교육수준별 구조



러나 여성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유휴화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 고용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휴화율도 같이 떨어져 노동 시장에서 고학력 여성의 활용도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용 가능성도 더욱 낮아졌다.

전반적으로 고학력 여성의 유휴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학력 여성이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자원의 낭비이며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취업서비스나 취업여건을 소폭 개선함으로써 유인하는 이상으로 노동시장

에서 이탈해 있는 고학력 여성을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는 통상 사용되는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등의 노동력 지표들이 여성의 고용 상황 및 노동력 활용 정도의 측면을 정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문제 의식하에 여러 방식으로 노동력 지표들을 검토하고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표를 이용해 여성노동력 구조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력 지표들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에 의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의 현상과 문제점, 즉 여성 유희인력 풀(pool)의 규모와 변화 추이를 포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문제를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유희인력과 관련해 몇 가지 향후 분석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나라 여성 잠재실업자의 특성과 관련된 분석이 하나의 흐름이 될 것이다. 실망실업자를 비롯해 경계노동력에 포함되는 여성들은 어느 정도 노동시장에 결속되어 있는가? 실업자적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가, 아니면 비경제활동인구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가? 이러한 특성에 대한 분석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잠재실업자의 분류가 독자적인 노동력 상태 중 하나의 분류로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 대상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노동시장에의 결속력이 약한 경계노동자에 포함되기 쉬운 여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어떤 인구학적 그룹의 여성이,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장애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이는 노동공급 분석과 함께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유인을 제거하는 데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는 잠재실업자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노동력 상태간 이동에 주목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하여 노동력 상태간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가? 또한 여성의 경우 통상적인 방식대로 비경제활동→실업→취업의 경로를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반대의 경로를 거쳐 노동시장에서 퇴출하지 않고 취업-실업-잠재실업-비

경찰 간에 넘나드는 이동이 빈번한가? 이에 대한 분석은 여성고용정책의 범위가 전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유휴인력에 대한 거시적 분석과 전망이 요구된다. 특히 여성의 노동공급은 노동시장의 긴박 정도와 매우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고령화 및 저출산력 시대를 맞아 여성 노동공급은 점점 더 인력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유휴인력의 변화 추이는 여성인력의 일차적인 가용인력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어, 단순한 낙관론에 기대기보다는 과학적 분석 틀에 입각하여 유휴인력의 개념을 포함하는 중장기적인 공급 전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정진호. 「잠재실업에 관한 연구 - 한국 비농부문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9권, (1986) pp.147-158.
- 정진화. 「제조업 인력부족현황과 여성인력 활용방안」, 산업연구원, 1991. 2
- 조우현·강창희. 「유휴인력과 인력난 병존의 경제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19권 1호, (1996) pp.151-178.
- 최강식·정진화. 『여성 잠재인력의 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7.
-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Hidden Unemployment in Australia.” ACOSS Paper 131, November 2003.
- Bregger, John E., & Haugen, Steven E. “BLS Introduces New Range of Alternative Unemployment Measures.” *Monthly Labor Review* 118(10) (Oct. 1995).
- Castillo, Monica D. “Persons Outside the Labor Force Who Want a Job.” *Monthly Labor Review* (July 1998) pp.34-42.
- Clark, K., & L. H. Summers. “Labor Market Dynamics and Unemployment: A Reconsidera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979) pp.13-60.
- Flaim, P. O. “Discouraged Workers: How Strong are Their Links to the Job Market?.” *Monthly Labor Review* 107 (8), (1984) pp. 8-11.
- Gray, M., Heath, A., & Hunter, B. “An Exploration of Marginal Attachment to

- the Australian Labour Market.” *Research Discussion Paper*. AIFS, RBA, ANU. (2002).
- Green, A. E. “Insights into Unemployment and Non-employment in Europe using Alternative Measures”. *Regional Studies* 33(5) (Jul 1999), Cambridge, p.453(12 pages).
- Greenwood, M. J., & U. Kohli. “Exact Unemployment Rate Indices.”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21(2) (Apr. 2003), Huntington Beach, pp.218-226.
- Gunderson, Morley. “Probit and Logit Estimate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Industrial Relations* 19(2) (Spring 1980), Berkeley, p.216.
- Hall, R. E. “Why Is the Unemployment Rate So High at Full Employmen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70) pp.369-402.
- Humphrey, D. “Alleged ‘Additional Workers’ in the Measurement of Un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8, (1940) p.412. p.419.
- Jones, S. R. G., & W. C. Riddell. “The Measurement of Unemployment: an Empirical Approach.” *Econometrica* 67(1), (1999) p.147. p.162.
- _____ (2000), “The Dynamics of US Labor Force Attachment.” *Preliminary Paper*. (September 2000).
- Kodrzycki, Y. K. “Discouraged and other Marginally Attached Workers: Evidence on Their Role in the Labor Market.” *New England Economic Review* (May/Jun 2000) p.35.
- Long C. D. “The Labor Force under Changing Income and Employ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58).
- McConnell, C. R., & Brue, S. *Contemporary Labor Economics*. 3rd edn, New York: McGraw-Hill, (1992).
- Norwood, J. L., & J. M. Tanur. “Measuring Unemployment in the Nineties.” *Public Opinion Quarterly* 58, (Summer 1994) p.2.
- Sutherland, J. “Further Reflections on Hidden Unemployment: an Examination of the Off-flows from the Claimant Count in the North West of England.” *Regional Studies* 33, (1999) pp.465-76.
- Woytinsky, W. S. “Additional Workers and the Volume of Unemployment.” Committee on Social Security of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Washington, Pamphlet Series No 1.

**Indices of Labor Force Utilization :
An Application to a Study on Female Idle Labor Force**

Hwang, Soo Kyeong

Participation rate and unemployment rate are most popular and representative indices showing the situation of labor supply and labor force utilization in a country. Those indices, however, have limits to picture the exact structure of labor supply especially for the vulnerable workforce groups such as women, young people, and the aged. On the basis, this paper examines the limits of unemployment rate in various ways and tries to construct new indices including the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the idle workforce rate, and the recessed workforce rate. This paper also demonstrates that these new indices are able to capture a structural blind spot on female labor force utilization which cannot find using the traditional indices.

Key words : labor force indices, definition of unemployment, idle labor force, attachment to the labor market, hidden unemployment, discouraged workers, marginally attached workers